

군산 미룡동 고분군 2차 시굴·발굴조사

시, 성공적 조사·안전 기원 개토제... 묻혀있던 군산 마한역사 발굴 최선

군산시는 11일 성공적인 조사와 안전을 기원하는 개토제를 시작으로 12월까지 2023년 군산 미룡동 고분군 2차 시굴 및 발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조사를 통해 마한고분 1기와 옹관묘 1기 등이 조사되었고, 매장주체부(토광묘)에서 원저단경호, 옹관묘에서 철검 등이 발굴됐다. 옹관묘를 덮고 있는 갈색사질토에서 초기철기 시대(BC300~기원전후) 유물이 출토되어 이른 시기 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했다.

군산 미룡동 고분군 조사는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한(韓)문화 성립의 한축을 담당한 마한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실시하며, 발굴 조사는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가 담당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묻혀있던 군산의 마한역사를 발굴하고, 2024년 발굴 및 시굴비용을 확보하여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산 미룡동 고분의 시굴 및 발굴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전북도청 및 관계자



군산시는 11일 성공적인 조사와 안전을 기원하는 개토제를 시작으로 12월까지 2023년 군산 미룡동 고분군 2차 시굴 및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비밀을 간직한 마한역사와 군산의 고대역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북대 조화림 교수, 프랑스 정부 최고 훈장 수훈

문화예술 교류 활동 인정 '레지옹 도뇌르 슈발리에 기사장' 받아

전북대학교 조화림 교수(국제협력처장, 프랑스·아프리카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뇌르 슈발리에(La Legion d'honneur Chevalier) 기사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레지옹 도뇌르 훈장은 프랑스에서 가장 명예로운 훈장으로 나폴레옹 1세가 전장에서 공적을 세운 군인에게 수여하는 것에서 유래, 프랑스의 정치, 경제, 학술, 문화 등의 발전에 공적을 세운 시민과 외국인에게 수여되고 있다.

조화림 교수는 '2015-2016년 한불 상호 교류의 해'를 맞아 프랑스 베르사유 바로크 음악센터 연주거점과 합창단을 초청해 전주, 수원, 통영에서 프랑스 정통 바로크 음악의 진수를 한국의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등 한국과 프랑스의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 활동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2017년 프랑스의 학술 및 문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프랑스 정부로부터 슈발리에 학술훈장 기사장을 받은 이후 또 한 번의 영예를 안았다.

당시 조 교수는 파리 에스트 마른 라 발레대학교에서 석사 과정 강의와 세미나를



전북대 조화림 교수가 프랑스 정부 최고 훈장을 받고 있다.

맡았고, 파리 누벨 소르브느, 파리 국립무이뤘미에르영화학교 등과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프랑스 주요 대학과의 지속적인 학술 교류를 이끈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무형유산원, '이수자년(傳)' 개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7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토요일 오후 4시 열우마루 소공연장에서 '2023 이수자년(傳)'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수자년(傳)'은 무형유산의 차세대 전승주역인 이수자들이 활약할 수 있는 장을 넓히고자 추진되는 공모 공연으로, 공모·심사로 선정된 무형유산 이수자들의 작품으로 진행된다.

공연은 전석 무료며, 각 공연별 10일 전부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 가능하다. 특히 현장 관람이 어려운 사람은 국립무형유산원 유튜브(www.youtube.com/@nihc2014)로 실시간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0-1500, 1501)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형유산 이수자들이 더욱 폭넓은 관객과 만나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7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토요일 오후 4시 열우마루 소공연장에서 '2023 이수자년(傳)'을 개최한다.

최초전시지원 프로젝트 일환 양지영 작가 첫 개인전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21일까지 전북예술회관 3층 산마루 전시실에서 양지영 작가의 첫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1일 재단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도내 최근 5년 이내 개인전 이력이 없는 경력 단절 시각 분야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개인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최초전시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각 분야 전문예술인에게 창작활동 동기 부여 및 예술활동증명 등록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했다.

작가에 의하면 그림은 나에게 일기장과 같다. 기억에 남는 장면, 감정 등을 박제하는 회고록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작품 속에 심리와 감정 등을 담기 위해 색채와 선, 점을 활용해 작업하고 있다. 예술이라는 행위는 작가와 관람객 모두에게 평온을 가져다주며,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전할 수 있는 작품을 그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시에 관한 문의는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063-230-7430~7433)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연령별 문화예술교육 수강생 모집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예술놀이터·미술·발레 등 프로그램 추진

한국소리문화의전당(대표 서현석)은 전북도민들의 여유로운 문화여가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령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문화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번 교육은 전액 무료이며, 정원 충족 시 모집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먼저, 전북지역 초·중·고·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예술놀이터 SORI'는 예술을 어렵게 받아들이는 아동들에게 다양한 표현활동을 통해 예술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창의성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교육기간은 8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주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 2시간씩 진행된다. 1기(3~4학년)와 2기(5~6학년)로 나뉘어 각 기수당 20명씩 총 4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하며, 신청 기간은 8월 11일까지다. 문의 전화는 063-270-7837이다.

이어 '어른들의 문화놀이터 See'는 만 19세 이상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미술작품 감상, 작가와의 대화, 창작활동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기간은 7월 21일~9월 8일까지 7주 과정이다. 매주 금요일 3시간씩 진행하며, 1기(오전반)와 2기(오후반)로 나뉘어 각 30명씩 총 60

명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14일까지며, 문의 전화는 063-270-7838이다.

또 기술 입문 문화예술교육 '아트스쿨 XR 세계소리여행'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XR(확장현실), 코딩 등 신기술과 세계 여러 나라의 타악기를 경험하고 제작해보며 4차 산업 신기술을 예술 창작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이다. 교육기간은 7월 24일~8월 10일까지 25명씩 3기수를 모집하며 9월 2일 발표회가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20일까지이며, 이메일(sori_gsm@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전화는 063-270-7841이다.

끝으로 생애전환기를 맞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발레로 쓰는 자서전'은 발레를 배우면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자서전으로 쓰고, 교육 수료 후 발레 발표회와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기록한 아카이브 전시회를 통해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응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기 교육은 9월 11일~11월 10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2시간씩 15주 과정이다. 신청기간은 7월 25일~9월 7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전화는 063-270-7848이다.

/장은성 기자

